

태고종(총무원장 예초) 제20회 합동 독도수계산림 신청 행사는 4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정수원(정수원장 지허)이 10일 총무원 설립전에서 실시한 행사소양시험 신청에 따른 것이다. 합동독도수계산림은 행사소양시험에 합격한 행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24일부터 11월7일까지 15일간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에서 개최된다.

태고종 소식

태고종 전북교구 총무원(총무원장 수종)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주 승암사에서 2백여명의 각 사암주지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려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불교개론, 엄감연기론, 불전강독등의 강의와 △종단 및 중무인의 중무방침 △현대 불교 신도관리법등의 교육이 실시됐다.

KBS, MBC, SBS 불교연구회가 주최한 전국방송인불자연합회(회장 김학선)가 오는 14일 오후2시 여의도 불교문화대전 현장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출범한다.

전국 방송인불자연 14일 창립법회

KBS 불교연구회 회원 3백51명, MBC 불교연구회 회원 70명, SBS 불교연구회 30명등 총 4백50여명의 회원들은 앞으로 방송인 불자들의 신심과 친목도모에 앞장설 계획이다.

천태종 청소년수련원 세운다

성문사 치악산에 1일 기공... 공사비 22억여원 투입 생활관·강당·야영장 등 시설갖춰 내년 12월 개원

치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원주벌이 한 눈에 굽어보이는 치악명산 기슭 2만3천여평에 천태종 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된다.



천태종은 지난 1일 원주 치악산에서 '천태 청소년 수련원'의 집 기공식을 거행했다.

서 문덕 총무원장, 박형철 참의원장, 도원 총무부장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천태 청소년 수련원'의 집 기공식을 위해 기공식을 개최했다.

오는 97년 12월 개원할 예정인 숙박정원 58명, 야영정원 34명의 '천태 청소년 수련원'의 집은 총 공사비 22억 3천만원이 투입되며 부지 총면적은 2만3천여평이다.

종부지역 청소년교육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이 예상되는 '천태 청소년 수련원'은 8천평의 시설면적과 건축 연면적 3백평규모다.

특히 1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1백10평의 생활관, 70평 강당, 75평 공동취사장을 갖추고 있다. 이와함께 야외시설로 5백60평 야영장, 3백평 야외집회장, 6백평 주차장, 9백평 체육활동장과 5천여평의 기타 부대시설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불교계의 청소년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예정이다.

천태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송재스님은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는 청소년의 심성과 품성을 도야하는 도장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며 '점차적으로 청소년 수련원'의 집 시설규모도 넓혀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태종 청소년 수련원'의 집은 2대 종정이었던 남대총대종사가 '불교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는 청소년불자에게 달려있다'며 청소년교육을 위해 지난 92년 9월 현 부지를 방문한 뒤 매입해 95년 10월 허가신청을 받아 건립을 추진해 왔다.

천태종 청소년 수련원'의 집은 2대 종정이었던 남대총대종사가 '불교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는 청소년불자에게 달려있다'며 청소년교육을 위해 지난 92년 9월 현 부지를 방문한 뒤 매입해 95년 10월 허가신청을 받아 건립을 추진해 왔다.

천태종 청소년 수련원'의 집은 2대 종정이었던 남대총대종사가 '불교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는 청소년불자에게 달려있다'며 청소년교육을 위해 지난 92년 9월 현 부지를 방문한 뒤 매입해 95년 10월 허가신청을 받아 건립을 추진해 왔다.

박용기위원 → 공로상 김학주 PD → 특별상

33회 방송의 날 시상

불교방송 박용기 방송제작위원과 김학주 PD는 지난 3일 제 33회 방송의 날을 맞아 공로상과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박용기위원은 64년부터 KBS와 TBC 등에 근무하며 다수의 작품을 연출했으며 90년부터는 BBS방송제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불교예술, 문화계에 미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학주PD는 한국불교음악의 총체적인 모습을 담은 기획 프



공로상 수상자 박용기위원



특별상 수상자 김학주 PD

로그래 '불교음악순례'로 작품상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TV 방송으로는 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태국불교TV 방송국이 지난 8월 12일 첫 전파를 발사했다. 태국 민영방송인 타이스

태국에도 '불교TV' 생겼다

카이 텔레비전의 제 11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태국불교TV 방송은 불교교리, 스님법문 등의 프로그램을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4

김원우 기자

시간씩 3회 순환방송하고 있다. 태국불교TV 방송국은 또한 오는 연말부터는 하루 12시간씩 2회 순환방송을 실시할

태국에도 '불교TV' 생겼다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위성방송을 통해 중국 일본 한국 타이완 홍콩 등 인근 불교국가에서도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BBS불교방송이 지난해 불교부산방송과 불교광주방송 개국에 이어 불교대구방송과 불교청주방송의 막바지 개국 준비에 한창이다. 불교대구방송은 오는 10월 개국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나 불교청주방송은 오는 연말에나 개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두 지방방송국의 연내개국과 더불어 불교방송의 전국망 확대를 위한 대전, 전주, 춘천, 창원 등 잇따른 지방방송국 추가설립이 허가될 경우 불교방송은 명실상부한 전국방송망체제로 대전환의 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방송국 개국 준비 한창



8층에 불교대구방송 스튜디오와 편집실 등이 마련돼 있는 대구 진각회관.

대구 '맑음' 청주 '흐림'

불교대구방송도 추진과정에서 서울 중앙국과의 주도권 문제로 시설장비발주등 일부 추진상황이 지연되고 있으나 대구 경북지역 조계종 5개본사와 태고종, 진각종 등 각종단의 참여유도로 개국에 필요한 재정이 비교적 원활히 조달됐고 지난달에는 160인의 방송운

으로 보인다. 불교청주방송은 올해 초 신축사옥 조감도를 발표하며 상쾌한 개국준비를 펼쳐왔다. 그러나 개국에 필요한 출자금에 예정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등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 사육신축이 사실상 백지화 되었고 방송시설 장비 발주, 스튜디오 개설등도 제대로 추진되

방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불교청주방송의 개국은 오는 연말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불교청주방송은 방송국 개국을 위한 기금마련 선서화전 등 모금활동을 벌여왔으나 해당지역에 교구본사가 법주사 하나뿐인 집중이 5개교구본사가 밀집한 대구 경북지

매일 4시간 시험방송... 10월 '전파' 대구 사육 신축 백지화... 연말돼야 가동

영위위원회 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구 경북지역 방송으로서의 면모를 구축했다. 따라서 시험방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진각회관 준공공사 허가만 득하게 되면 오는 10월 개국전선은 맑음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불교청주방송(추진위원장 해광스님)은 목표로 잡았던 10월 개국이 어려울 것

지 못했다. 난항을 거듭해온 불교청주방송은 사육신축 계획을 변경, 지난달 청주시 상당구 건축자재백화점 3개층을 임대 계약에 앞으로 스튜디오 개설과 송신탑 설치 등의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현재 서울중앙국에 머물고 있는 신입사원들이 청주에 합류하게 된 후이나 시험

역에 비해 불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데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개국이후에도 지역사찰과 불자들의 협조체계 구축, 이를 통한 재정확보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하는 것이 불교청주방송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야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혔다. 따라서 서울대회 연기는 의아할 수밖에 없다. 한국대표로 참석한 박용기씨는 "대회장소와 각국 대표자들의 숙소예약도 마친 상태"라며 연기불가

WFB와 한국불교 위상

를 주장했으나, 대다수 회의참석자들의 연기 결정을 들이키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대회 스폰서가 불확실하고 조직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아 올해 대회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WFB본부의

판단이 연기를 결정한 더 큰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올해 안이라도 대회개최가 가능하며 서울대회의 반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또 원불교와 종단연합회 지부 등 3분파된 한국지부의 분열도 넘어야 할 산이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교계에서는 세계규모의 대회를 치르는데 불교계의 힘을 모으기보다는 몇몇 사람에게 의해 추진되다 끝내 대회 연기라는 극대적인 수모를 당했다며 한국불교의 위상 추락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성운 기자

복지사회를 향한 불교계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각현) 주최로 열린 '제1회 불교사회복지지도자 워크숍'은 불교사회복지단체장 및 시설장, 학자, 각종단 사회복지관련 주무부서장, 교계 사회·시민단체장 등 복지전문가들이 대거 참여 행사자제로 교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복지사회를 향한 불교계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각현) 주최로 열린 '제1회 불교사회복지지도자 워크숍'은 불교사회복지단체장 및 시설장, 학자, 각종단 사회복지관련 주무부서장, 교계 사회·시민단체장 등 복지전문가들이 대거 참여 행사자제로 교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1세기 복지사회를 대비한 불교계의 역할과 불교사회복지 활성화 방안을 불교복지경

력자 및 전문가들이 실무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리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워크숍은 주최측의 노력과 취지에는 이랑곳 없이 좌장의 리더십 부족과

'바다수준인 토론문화'

발제자의 무성위한 발표태도, 토론자의 발제자에 대한 칭찬 일색과 토론을 떠난 자단체 알리기로 참가자들의 얼굴을 찡푸리게 했다. 몇몇이 지난 복지시현상황과 정확하지 않은 정부의 복지예산자료를 발표하거나 미

리준비해온 발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이 읽어내리려는 발제자의 모습. 더구나 발제에 대한 토론자의 지적과 대안제시는 없이 발제자 '얼굴세워

주기'식의 칭찬을 위한 칭찬이 난무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발제에 대한 논평은 뒷전인데 그동안 자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한평생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가를 하소연이라도 하듯 한 많은(?) 인생을 얘기하느라

한정된 시간을 초과하기 일쑤여서 바닥수준인 불교계 '토론문화'를 여실히 드러내보였다.

불교가 미래사회를 주도할 자면 많은 연구 노력이 선결되어야 한다는게 불교계를 바라보는 이들의 중론이다. 그러자면 우선 불교계내에 성숙된 토론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의견교환과 정보교류가 빈틈없는 실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필선 기자

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신(편)입생 모집요강

1989년에 설립되어 불교전통의식 교육자를 양성하고 있는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前 불교전통의식교육원)』에서는 앞으로 불교계의 발전과 조상이 남긴 훌륭한 문화 유산인 법패와 승무 요점 및 작법등 불교의식의 전통의 맥을 우리 후손에게 잘 전승해 주었을때 그 종교적 가치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교육대학에서는 법패의 가치성을 보다 높이고 계승·발전시키고자 불교전통의식에 뜻이 있는 스님 불자들의 입학을 바라고 있습니다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합장

Table with 4 columns: 학과, 교육내용, 모집인원, 비고. Rows include 초급교육과정, 진급교육과정, 연구과정.

-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추천서, 4)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주5회 (월~금) □접수일자: 1996년 8월 26일 ~ 9월 15일

□원서교부 및 접수처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Advertisement for '장뇌(장뇌) 山蔘' (Ginseng) with text: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장뇌(장뇌) 山蔘. Includes benefits, price, and contact info for Seoul 'Jangno-ginseng' business.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전화 주문처 서울『장뇌산삼』사업부 大物民藥院 서울(02)207-8387